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최우수'

에너지 복지 실현 지속 추진

전북도 최우수 축제 선정... 인센티브 7000만원 확보

장수군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024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도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전라북도는 매년 관광 상품성이 우수한 시·군 대표축제를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 현장평가와 최종평가를 거쳐 14개 시·군의 축제를 전라북도 지정 축제로 선정해 육성 지원하고 있다.



장수군 대표축제인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024년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도비 7,000만원을 확보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 대표 Red Color 농특산물(사과·한우·오미자·토마토 등)을 테마로 한 전라북도 대표 농특산물 체험형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축제를 개최하며 기존 의암공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축제장을 누리파크(유령형 기적정원)까지 확장해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축제로 만들었다.

또한 30만명의 방문객과, 35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는 등 전국단위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역 대표 축제로 인정 받았

다. 김홍기 축제추진위원장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최고의 명품 농·특산물과 과거, 현재, 미래의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게 꾸려나가고,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특산물과 장수군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 대표 Red Color 농특산물(사과·한우·오미자·토마토 등)을 테마로 한 전라북도 대표 농특산물 체험형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LPG공급단가 마을공동계약 체결 난방비 절감

장수군이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LPG 배관망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군은 2023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계남면 화양리 난방마을 등 5개 마을과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장계면 송천리 서변마을 등 3개 마을을 선정해 추진해 왔다.

또한 수변지역 기금 공모사업에 천천면 돈촌마을이 선정되면서 2023년 한해 동안 총 9개 마을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복지 실현에 힘써왔다.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 외곽지역 마을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을에 공동 LPG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공급 배관을 통해 세대마다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31개 마을, 1,308세대를 대상으로 LPG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역대 어느 해보다 많은 9개 마을 387세대에 58억 8,000만원을 투입해 도시

가스 수준의 LPG가스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에 더해 국제유가상승으로 군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반영해 군은 LPG 공급단가를 9개 마을 공동입찰로 추진하며, 마을 개별 계약 시 가격 MP+180원/kg보다 51% 낮은 MP+89원/kg으로 체결했다.

장수군은 이번 LPG 공급단가 체결을 통해 난방비에 대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고 LNG와 LPG 간 공급단가 격차를 좁혀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고물가 시대에 일부나마 농촌지역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며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약속했던 도시가스 수준의 에너지 공급 및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수군민들의 에너지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1번지 도약

2023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 장려상 수상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평가는 전국 102개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홍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역 분위기 조성, △차별화 성과 등을 평가한 것으로, 무주군은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를 비롯한 예비 귀농인 학습과 농산업 창업 교육,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총 16개 사업을 기반으로 도시민 유치와 안정적 생활 정착을 지원해 호평을 얻었다.

이외에도 △귀농·귀촌인 집들이 비용과 △건축 설계비, △농지 취득세,

△지역 정착 이사비, △임시 거주지 임차료,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귀농인 농지 형상 복구와 △고령 은퇴 도시민의 영농 및 생활, △귀향인 유턴 정착, △청장년층에 대한 영농 지원도 관심을 모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김광영 과장은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은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2위를 차지하며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줬다"며 "2024년 자연특례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무주방문이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선정

장수군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2024년 하수도분야 사업에 선정돼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 33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사업비는 331억원으로, 국비 198억원, 기금 99억원, 군비 33억원의 재원이 투입돼 하수관로 정비(불명수 저감) 25km를 추진하게 된다.

불명수 저감사업은 관로 및 맨홀 등에서 유입되는 우수 등을 저감 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장계하수처리구역 25km에 불명수 저감사업을 실시해 관로 통수단면

을 확보하고 처리장 유입수를 최소화시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사업비 투자를 줄여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1년 확정된 장수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213억원)과 더불어 금번 장계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인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와 운영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하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2024 갑진년 무주군 해맞이' 행사를 1일 무주읍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가졌다. 무주읍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관내 기관·사회단체를 비롯한 주민 등이 참석했다.

힘찬 도약 무한한 무주 번영 기원

무주군, 새해 첫날 향로산서 해맞이 가자

무주군은 '2024 갑진년 무주군 해맞이' 행사를 1일 무주읍 향로산 제1전망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수군의 정부우수공무원, 총리모범공무원, 군정발전공무원 및 기관·단체·군민에 대한 표창과 최훈식 장수군수의 송년사 등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기원하는 덕담을 나누고 '만세삼창'을 통해 좋은 기운을 돋우는 등 해맞이를 함께 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청룡은 풍족을 수호하는 신성한 동물로 창조와 생명, 신생을 의미한다"며 "동부권인 무주에 더 좋은 기운이 깃들길 바라는 마음 담아 새해 시작을 군민과 함께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룡의 해' 진안 용담면 해맞이 행사

갑진년 새해 맞아 주민들과 첫 일출 감상

진안군 용담면은 1일 청룡의 해를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2024 갑진년 해맞이 행사를 태고정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과 함께 첫 일출을 감상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희망찬 새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용담면장의 신년사 낭독, 참석 내빈의 새해 축사와 희망찬 새해를 염원하고 면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맞이 기원제, 해맞이 관람 등의 행사로 마무리 됐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소원지 쓰기, △사신혈영, △떡국 나눔행사가 이어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종무식 개최

장수군은 지난해 12월 29일 군민회관에서 공직자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계묘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무식에서는 장수군의 정부우수공무원, 총리모범공무원, 군정발전공무원 및 기관·단체·군민에 대한 표창과 최훈식 장수군수의 송년사 등이 이뤄졌다.

정부우수공무원 대령 표창에는 구

선서 농업정책과장이, 장관 표창에 기획조정실 유기환 정책팀장이 선정돼 각각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에는 유홍열 체육시설팀장과 이선미 문화예술팀장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군정 발전 유공 군민 9명을 포함해 총 55명에게 장수군수 표창을 수여했다.

최훈식 군수는 송년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이끌어준 공직자와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성화약진(成和躍進)의 자세로 그동안의 성과와 화합된 군민역량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 해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 '오연재' 선정

무주군은 2023년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에 무주군 설천면에 소재해 있는 '오연재(五然齋)'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의 아름다운 건축상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공모 결과 주거 부문 2점의 후보 작품이 접수됐으며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는 건축문화 증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한 우

수 건축사와 건축물 1점을 선정(금상)했다.

오연재(五然齋) 건축주 신주혁 씨는 "무주군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연재는 '다섯 가지가 그러하다'라는 뜻으로 무주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고 지형을 거스르지 않는 건축물로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전북 유일 지방 세외수입 운영 평가 '우수'

진안군은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전라북도 차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제고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조와 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해 체납세외수입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80점)와 체납징수 노력도 등의 정성평가(20점)를 시행해 전국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다.

진안군은 정량평가 5개 지표와 정성평가 4개 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우수 기관 선정으로 진안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진안군은 산림복지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립지적권 산림치유원, 국립자연휴양림 등 관내 국립 산림분야 기관과의 상생 협력 및 산림복지 분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진안군에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지적권산림치유원의 위탁 운영 예정인 산림복지진흥원은 시설운영을 위해 80명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분야에 대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산림복지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안군민(사업 시행 시(2023.12.22.)부터 진안군에 주소 둔 자)이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재직자 등 정년 보장된 직장은 제외된다.

교육비는 자격 분야별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약 150만원이며 지역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비율이 변동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진안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사실상 관계 부부 포함 관내 모든 난임 부부에게 확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이며, 지원금액은 시술종류 및 연령별에 따라서 회당 20만원~110만원이다.

만 44세 이하는 1회당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 45세 이상은 1회당 신선배아가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검사항목으로는 기초검사,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 검사, 정자 검사 등이며 난임 진단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진안=우태만 기자